

ISSUE PAPER

2015. 3. 10 VOL.1

국내 커피 수입시장 분석

- 최근 10년 간 수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목차

요약

국내 수입시장 규모 | 1

국내 소비시장 규모 | 2

품목별 수입원 및 가격 | 5

지역(대륙)별 수입동향 | 12

수입구조 분석 | 15

주요 시사점 | 18

부록 | 19

집필

무역통계 2부 통계연구위원 | 맹철규

검수

무역통계 2부 부장 | 조영태

※ 주의 :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합니다.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트라스 홈페이지(trass.kctdi.or.kr)에서 원본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요약 〉

□ 2014년 기준 국내 커피수입시장은 5.9억불 규모로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15.3%씩 성장해 약 3.6배 확대(수입액 기준)



□ 생두는 베트남, 원두는 미국, 조제품은 브라질이 대세(2014 기준)

		2005	2010	2014
최대 수입대상국 (종량 기준, 비중 %)	생 두	베트남 (43.1)	베트남 (31.4)	베트남 (25.8)
	원 두	미 국 (60.2)	미 국 (51.5)	미 국 (40.7)
	조제품	싱가폴 (39.3)	브라질 (30.5)	브라질 (36.5)

□ 2014년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341잔(추정치)* 수준으로, 전년(298잔) 대비 약 14.4% 증가

○ 커피수입량 증가 속도가 국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인구수 증가율을 상회하는 바, 국내 커피 소비량은 증가추세를 반영

*〈커피 소비량 산출과정〉 커피 1잔 추출 분량을 미국산 아메리카노(10g=1잔)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커피류 수입량을 2014년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 추정치임

※주의 : 인구통계 변화 및 커피 추출 기준에 따라 가변적이며, 확정적 통계수치는 아님

○ 최근 수년간 국내 커피전문점 점포수의 확대 추세는 증가 추세에 있는 국내 커피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최근 10년간 모든 품목군에서 수입다변화가 진전되었으며, 수입집중도도 감소하였음**

- 최근 10년간 모든 품목군에서 수입대상국수가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이 큰 품목은 생두(2.6배) > 원두(2.4배) > 조제품(2.4배)의 順

		2005	2010	2014	최근 10년간 변화폭	증감률
수입대상국 수 (수입량기준)	생 두	28	58	72	44 ↑	157.1% ↑
	원 두	29	59	70	41 ↑	141.4% ↑
	조제품	33	75	79	46 ↑	139.4% ↑

- 최근 10년간 모든 품목군에서 수입다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원두의 수입다변화 정도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으나 여전히 집중도는 가장 높음

		2005	2010	2014	최근 10년 간 변화폭
HHI 지수 * (수입량기준)	생 두	0.244	0.175	0.142	-0.102
	원 두	0.403	0.321	0.247	-0.156
	조제품	0.256	0.144	0.179	-0.077

*허쉬만-허핀달지수 : $0 \leq HHI \leq 1$, 0의 값에 가까울수록 경쟁적, 1의 값에 가까울수록 독점적 구조를 나타냄.

- 최근 10년 간 원두 수입시장의 독점현상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독점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10년 전 2개국으로부터 수입비중이 75%가 넘는 복점(Duopoly)적 구조였으나 완화됨
- 모든 제품 품목군이 경쟁적 시장구조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생두와 조제품 수입시장은 상위 4개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쟁적 구조로 변화하는 속도가 원두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05	2010	2014	최근 10년 간 변화폭
CR 지수 ** (수입량기준)	CR ₁	생 두	0.431	0.314	0.258	- 0.173
		원 두	0.602	0.515	0.500	- 0.102
		조제품	0.393	0.305	0.365	- 0.027
	CR ₂	생 두	0.567	0.499	0.436	- 0.131
		원 두	0.787	0.696	0.688	- 0.099
		조제품	0.654	0.424	0.478	- 0.176
	CR ₃	생 두	0.699	0.633	0.586	- 0.113
		원 두	0.830	0.820	0.757	- 0.073
		조제품	0.818	0.525	0.586	- 0.233
	CR ₄	생 두	0.800	0.747	0.676	- 0.124
		원 두	0.864	0.899	0.821	- 0.043
		조제품	0.893	0.621	0.668	- 0.226

**기업집중도지수(Concentration Ratio)를 활용 : CR₁ (상위 1개 수입대상국의 수입비중으로서, 50%를 초과하면 독점적 시장구조), CR₂ (상위 2개 수입대상국의 수입비중 합계, 75%를 넘기면 복점적 시장구조), CR₃ (상위 3개 수입대상국의 수입비중 합계, 75%를 넘기면 과점적 시장구조), CR₄ (상위 4개 수입대상국 수입비중 합계, 90%를 넘기면 독점적 시장구조를 나타내며, 40%이하일 경우 경쟁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봄)

□ 주요 수입단가

- 3개 품목군 중 생두의 수입단가가 가장 낮고, 원두 평균수입단가가 가장 높으며, 수입단가 증가폭은 조제품이 가장 높음

		2005	2010	2014	최근 10년간 증감률(%)	3개 품목군 평균대비 단가수준(%)
수입단가 (\$/Kg)	생 두	1.55	2.95	3.40	119.4	35.2
	원 두	9.48	12.45	13.85	46.1	143.5
	조제품	3.69	8.02	11.70	217.1	121.2

- 베트남산 생두와 브라질산 조제품은 전체평균 수입가격보다 약 40% 저렴하며, 미국산 원두커피도 유럽산에 비해 저렴함 (2014년, 단가 = \$/kg)

생두				원두				조제품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1	베트남	2.13	62.4	1	미국	12.19	71.5	1	브라질	6.78	58.0
2	브라질	3.30	96.9	2	말레이시아	9.61	56.3	2	미국	14.11	120.6
3	콜롬비아	4.04	118.7	3	이탈리아	15.09	88.5	3	말레이시아	9.33	79.8
4	페루	3.84	112.8	4	스위스	38.11	223.5	4	콜롬비아	13.05	111.6
5	온두라스	3.34	98.2	5	영국	20.95	122.9	5	독일	33.44	285.9

* 순위기준 : 수입중량 이며, * 수준은 해당품목별 전체평균 수입단가(=100%) 대비 단가수준을 의미함

□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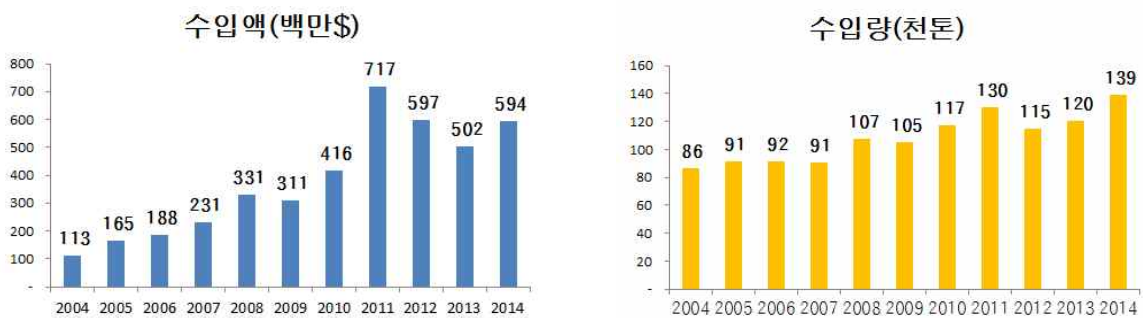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국내 소비자들의 커피선호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어 커피수입시장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커피전문점 점포의 급격한 증가가 이러한 커피 수입시장 확대추세를 반영
- 전국적으로 커피전문점의 수요 지역은 서울 및 경기지역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구밀도 분포와 비례하는 특징을 나타냄
- 최근 10년간 품목군별 수입대상국가수가 급증하는 등 수입다변화가 진행 되었으나, 가격 및 품질경쟁력·제품 선호도 등의 요인에 의해 특정국가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음

1. 국내 수입시장 규모

□ 전체 커피 수입시장 규모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5.3%씩 성장, 10년 전에 비해 3.6배 확대(수입액 기준)

○ 커피는 2005년 165백만불 수입규모에서 2014년 594백만불 규모로 약 260% 증가하였음

<그림1> 연도별 국내 수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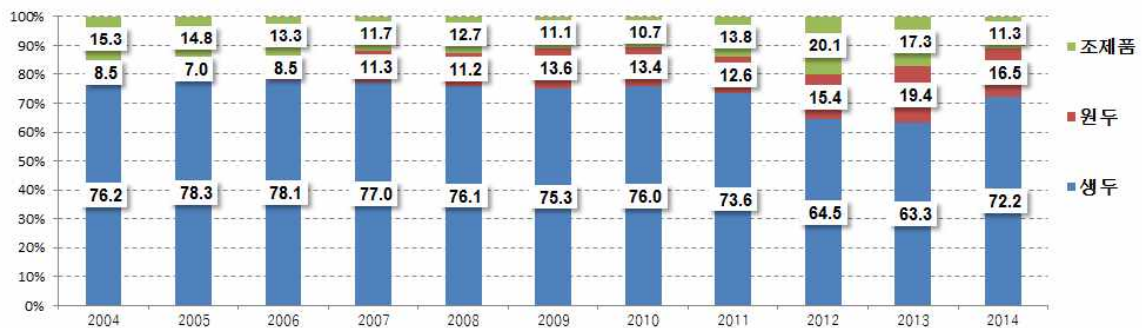


□ 커피수입의 품목별 구성은 생두(72.2%), 원두(16.5%), 조제품(11.3%) (2014년 수입액 기준)

○ 최근 10년 간 원두의 수입액 비중이 2.3배로 급격히 상승 (7% → 16.5% 비중 변화)

— '05년 생두(78.3%), 원두(7.0%), 조제품(14.8%) 수입액 비중에서 최근 10년간 원두의 수입비중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생두(72.2%), 원두(16.5%), 조제품(11.3%)로 변화

<그림2> 품목별 수입액 비중(%) 추이



- 최근 10년간 커피수입시장 규모는 생두는 3.3배, 원두는 8.6배, 조제품은 2.7배 증가(수입액 기준)

<그림3> 품목별 수입액(백만불) 추이



2. 국내 소비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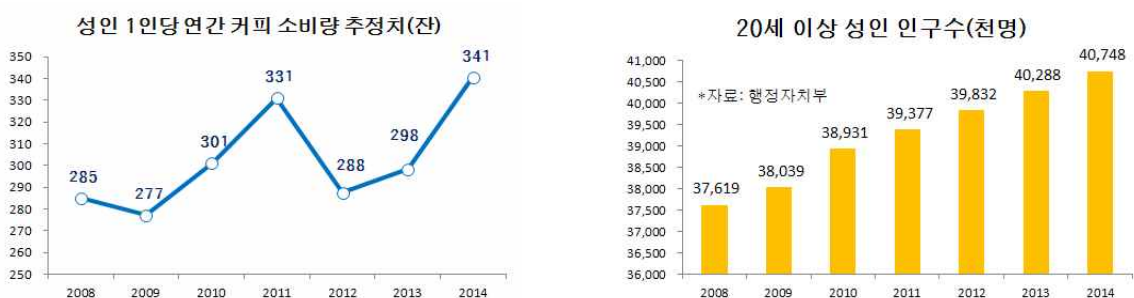
-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국내 20세 이상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약 341잔 수준으로, 최근 소비량은 전반적인 증가세 지속

<산출과정> 커피 1잔 추출 분량을 미국산 아메리카노(10g=1잔)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커피류 수입량(138,826,140kg)을 2014년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40,747,638명)로 나누어 산출한 추정치임

※(주의) 인구통계 변화 및 커피 추출 기준에 따라 가변적이며, 확정적 통계수치는 아님

- 최근 6년 간('08~'14)의 성인인구수 연평균 증가율과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3%와 3.0%로 나타나, 1인당 커피 소비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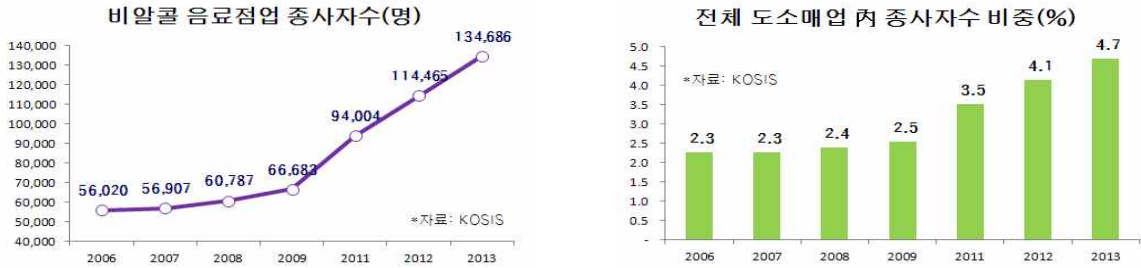
<그림4> 국내 수입커피 소비규모 추정



- 최근 커피전문점의 확대로 인해, 국내 커피소비시장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음

- 최근 7년간 ('06~'13)의 비알콜 음료점업 종사자수 변화를 살펴보면, '06년 56,020명에서 '13년 134,686명으로 약 140% 증가하였음
- 또한, 동기간 전체 도소매업 내에서의 종사자수 비중도 '06년 2.3% 수준에서 '13년에는 4.7%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시장규모가 확대됨

〈그림5〉 국내 비알콜 음료점업(커피 등 음료수 판매점) 현황



○ 커피 전문점을 통한 소비구조를 살펴보면, 전국의 인구밀도 분포와 비례하여 서울 및 경기 수도권에 밀집되어있는 특성을 나타냄

- 2013년 국내 비알콜 음료점업의 비중은 서울의 경우 사업체수 25.5%, 종사자수는 31.2%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19.3% · 종사자수 19.4%로 2위를 차지하여, 서울과 경기도를 합하면 45%~50% 수준에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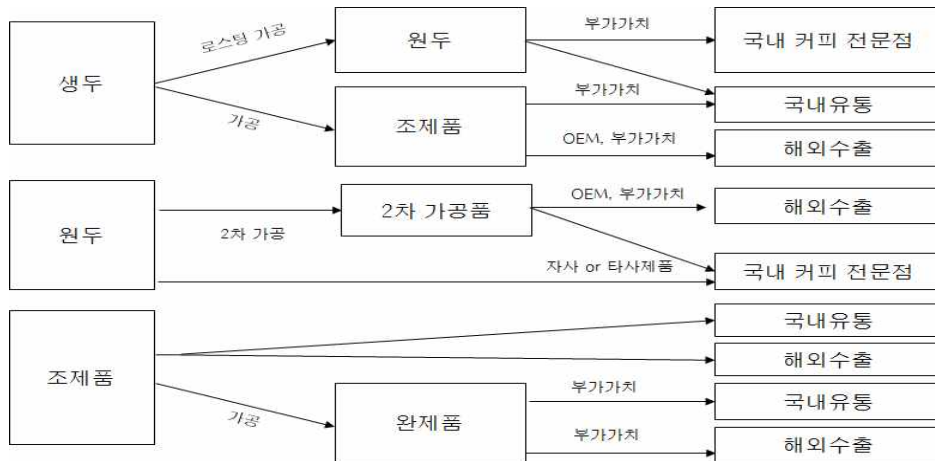
〈표1〉 2013년 국내 비알콜 음료점업 현황¹⁾

순위	시도별	사업체수(개)	비중(%)	순위	시도별	종사자수(명)	비중(%)
전국		48,121		전국		134,686	
1	서울	12,267	25.5	1	서울	42,071	31.2
2	경기도	9,305	19.3	2	경기도	26,107	19.4
3	경상북도	3,296	6.8	3	부산광역시	9,517	7.1
4	부산광역시	3,215	6.7	4	경상북도	7,206	5.4
5	경상남도	2,971	6.2	5	경상남도	6,780	5.0
6	대구광역시	2,510	5.2	6	대구광역시	6,480	4.8
7	인천광역시	2,071	4.3	7	인천광역시	5,325	4.0
8	강원도	1,800	3.7	8	광주광역시	4,301	3.2
9	전라북도	1,642	3.4	9	대전광역시	4,201	3.1
10	충청남도	1,638	3.4	10	전라북도	3,960	2.9
11	대전광역시	1,479	3.1	11	강원도	3,948	2.9
12	광주광역시	1,376	2.9	12	충청남도	3,781	2.8
13	충청북도	1,364	2.8	13	충청북도	3,284	2.4
14	전라남도	1,325	2.8	14	전라남도	3,188	2.4
15	울산광역시	987	2.1	15	울산광역시	2,483	1.8
16	제주도	780	1.6	16	제주도	1,815	1.3
17	세종특별자치시	95	0.2	17	세종특별자치시	239	0.2

1)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인용

- 국내 커피수입시장의 구조는 원재료 형태로 들여와 직접소비하는 경우와 국내에 들여와 2차 가공을 거친 후 국내에서 유통·소비되는 경우, 또는 2차 가공을 거친 후 해외로 수출되는 크게 3가지 경우로 구분 (<그림6>참조)

<그림6> 수입커피 국내유통 및 소비구조



* 자료 :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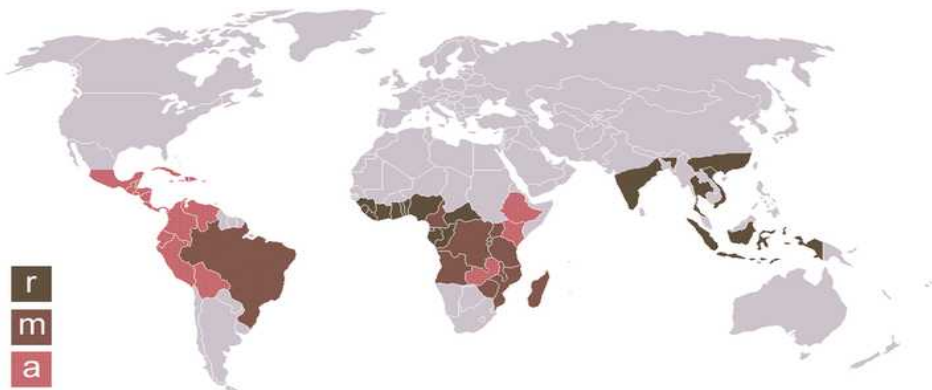
- 커피의 종류는 크게 아라비카와 로부스타로 양분되는데, 세계 전역에 걸쳐 재배지역이 고정적인 특징을 지님(<표2> 및 <그림7>참조)

<표2> 수입커피 국내유통 및 소비구조

대분류	특징	용도
Arabica	고도가 높고 기후가 좋은 지역에서 생산되며, 생두 크기가 크고 맛과 향이 다양	원두커피
Robusta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대량생산되며, 쓴맛이 강함	인스턴트

* 자료 : 필자 작성

<그림7> 커피 종(種)별 세계 재배지역



* 자료 : 인터넷 위키피디아 및 네이버 참조 (r = 로부스터, a = 아라비카, m = 혼합을 의미)

3. 품목별 수입원(收入源) 및 가격

□ 품목별 주 수입원은 생두는 베트남産(25.8%), 원두는 미국産(40.7%), 조제품은 브라질産(36.5%) *2014년 수입량 기준*

○ 최대수입대상국은 생두는 베트남(25.8%), 원두는 미국(40.7%), 조제품은 브라질(36.5%) (2014년 수입량 기준)

- 생 두 : 베트남(25.8%) > 브라질(17.7%) > 콜롬비아(15%)의 順
- 원 두 : 미국(40.7%) > 말레이시아(20.1%) > 이탈리아(18.7%)의 順
- 조제품 : 브라질(36.5%) > 미국(11.2%) > 말레이시아(10.8%)의 順

<그림8> 2014년 품목별 상위 5대 수입대상국 (수입비중 %, 중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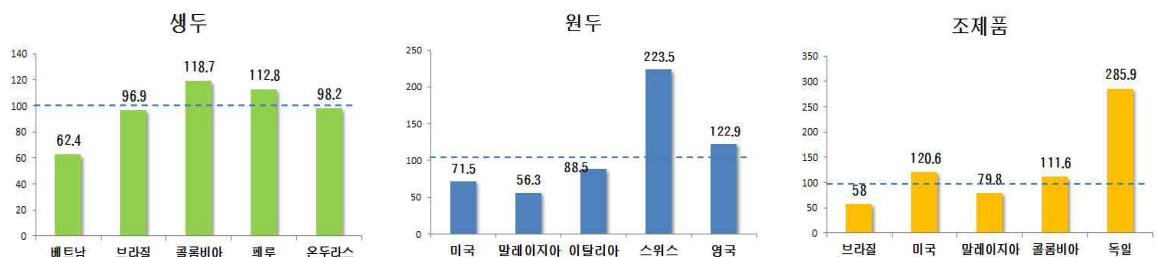


□ 최대수입대상국의 수입단가는 공통적으로 전체 평균보다 저렴한 수준

○ 최대수입대상국의 수입가격은 생두는 베트남산 제품이 평균의 62% 수준, 미국산 원두는 72% 수준, 브라질산 조제품은 58% 수준

- 생두 : 수입의 43%가 넘는 베트남·브라질산 제품은 평균가를 하회함
- 원두 : 미국산이 평균의 71.5% 수준으로 스위스·영국산에 비해 저렴
- 조제품 : 브라질산 가격이 전체평균의 58%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

<그림9> 2014년 품목별 상위 5대 수입대상국별 가격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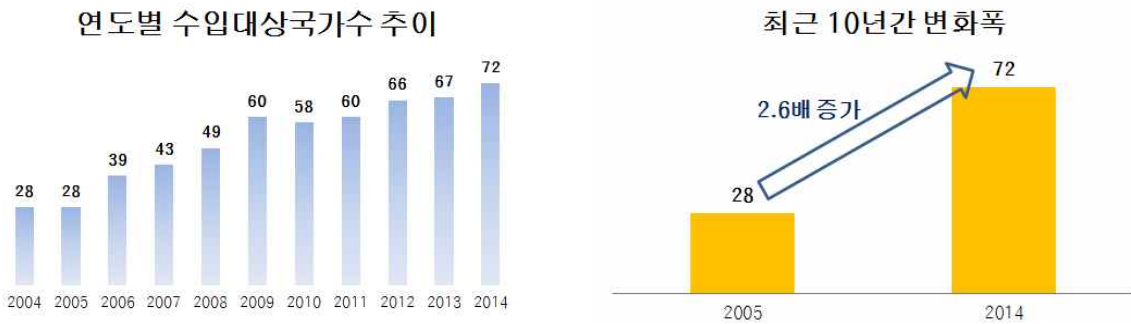
1 생두

□ 최대수입대상국은 베트남, 수입대상국가는 10년 간 2.6배 증가

○ 최근 10년간 수입대상국가수는 2.6배 증가하며 수입다변화 확대

— 2005년 28개국으로부터 생두를 수입하였으나, 2014년에는 72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대상국가수가 2.6배(157.1%) 증가하였음

〈그림10〉 생두 수입대상국가수 변화



○ 최대수입대상국은 베트남이며, 2005년 43.1%비중에서 2014년 25.8%비중으로 변화(수입중량 기준)

〈표3〉 생두 상위 10대 수입대상국 변화 (중량기준)

2005년				2010년				2014년			
순위	국가명	비중	누계	순위	국가명	비중	누계	순위	국가명	비중	누계
1	베트남	43.1	43.1	1	베트남	31.4	31.4	1	베트남	25.8	25.8
2	콜롬비아	13.6	56.7	2	브라질	18.5	49.9	2	브라질	17.7	43.6
3	브라질	13.2	69.9	3	콜롬비아	13.4	63.3	3	콜롬비아	15.0	58.6
4	인도네시아	10.2	80.0	4	온두라스	11.4	74.7	4	페루	9.0	67.6
5	온두라스	10.1	90.1	5	페루	6.8	81.5	5	온두라스	7.5	75.1
6	페루	3.1	93.3	6	인도네시아	5.6	87.1	6	이디오피아	4.9	80.0
7	파푸아뉴기니	1.6	94.9	7	과테말라	4.8	91.8	7	우간다	4.4	84.4
8	중국	0.8	95.7	8	이디오피아	2.7	94.6	8	인도	3.1	87.5
9	멕시코	0.7	96.4	9	파푸아뉴기니	1.1	95.7	9	과테말라	2.9	90.4
10	인도	0.7	97.1	10	코스타리카	0.8	96.4	10	코트디부아르	2.2	92.7

○ 최근 10년 간, 상위 10개국의 수입비중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최대수입대상국의 수입비중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17.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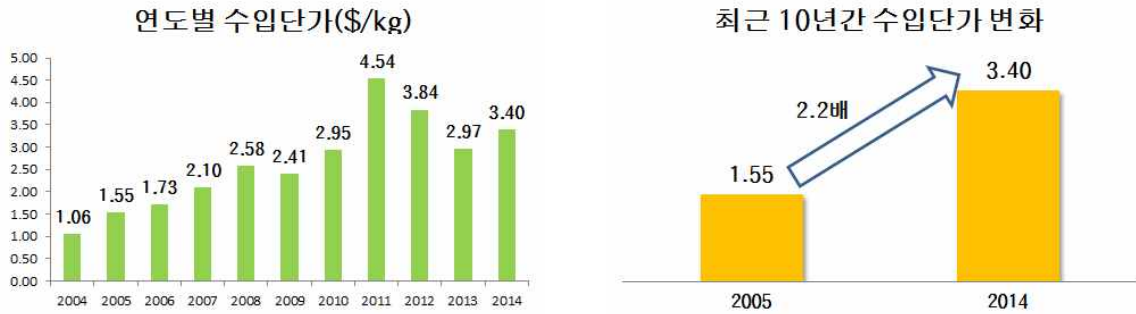
〈표4〉 생두 수입대상지역 비중 변화 (중량기준)

	2005년	2010년	2014년	최근 10년간 변화
최대수입대상국 비중(%)	43.1	31.4	25.8	-17.3%p
상위 3개국 비중(%)	69.9	63.3	58.6	-11.3%p
상위 5개국 비중 (%)	90.1	81.5	75.1	-15.0%p
상위 10개국 비중 (%)	97.1	96.4	92.7	-4.4%p

□ 생두의 평균수입단가는 최근 10년간 2.2배 증가, 베트남산은 전체평균의 62.4%수준(2014년 기준)

○ 생두 평균수입단가는 2005년 1.55\$/kg 수준에서, 2014년 3.40\$/kg으로 약 2.2배 증가하였음

<그림11> 생두 수입단가 변화



○ 최대수입대상국인 베트남산의 수입가격은 전체평균 수입가격의 62.4% 수준으로, 중남미산에 비해 저렴한 편임

<표5> 생두 수입대상국별 수입단가(\$/Kg) 및 전체 평균수입단가 대비 수준(%)

2005년				2010년				2014년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1	베트남	0.82	52.8	1	베트남	1.52	51.5	1	베트남	2.13	62.4
2	콜롬비아	2.42	156.1	2	브라질	3.09	104.6	2	브라질	3.30	96.9
3	브라질	2.17	140.1	3	콜롬비아	4.55	154.3	3	콜롬비아	4.04	118.7
4	인도네시아	1.07	69.1	4	온두라스	3.36	113.9	4	페루	3.84	112.8
5	온두라스	2.49	160.5	5	페루	4.38	148.4	5	온두라스	3.34	98.2
6	페루	2.18	141.0	6	인도네시아	1.84	62.5	6	이디오피아	4.79	140.5
7	파푸아뉴기니	2.10	135.7	7	과테말라	3.77	127.9	7	우간다	2.94	86.4
8	중국	2.48	160.1	8	이디오피아	3.48	118.1	8	인도	3.25	95.4
9	멕시코	1.63	105.5	9	파푸아뉴기니	3.51	119.0	9	과테말라	4.99	146.6
10	인도	1.88	121.2	10	코스타리카	4.24	143.7	10	코트디보아르	2.29	67.4

○ 베트남을 제외한 상위 10개국의 평균 수입단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나타냄('05년 124%→'10년 114%→'14년 103% 수준)

<표6> 생두 수입대상지역 연도별 평균단가 변화

	2005년	2010년	2014년	최근 10년간 변화
전체 평균수입단가(\$/Kg)	1.55	2.95	3.40	
최대수입대상국 수입단가(\$/Kg)	0.82	1.52	2.13	1.31\$ ↑ (159.8% ↑)
(평균대비 단가수준(%))	(52.8)	(51.5)	(62.4)	(9.6%p ↑)
상위 3개국 평균수입단가(\$/Kg)	1.80	3.05	3.16	1.35\$ ↑ (75.1% ↑)
(평균대비 단가수준(%))	(116.3)	(103.5)	(92.7)	(23.6%p ↓)
상위 5개국 평균수입단가(\$/Kg)	1.79	3.38	3.33	1.54\$ ↑ (85.8%)
(평균대비 단가수준(%))	(115.7)	(114.5)	(97.8)	(17.9%p ↓)
상위 10개국 평균수입단가(\$/Kg)	1.92	3.37	3.49	1.57\$ ↑ (81.8% ↑)
(평균대비 단가수준(%))	(124.2)	(114.4)	(102.5)	(21.7%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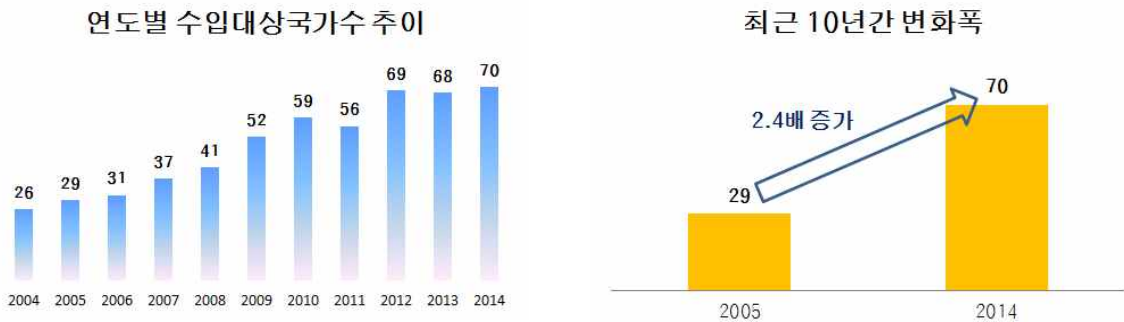
2 원두

□ 최대수입대상국은 미국, 수입대상국가는 10년 간 2.4배 증가

○ 최근 10년간 수입대상국가수는 2.4배 증가하며 수입다변화 확대

— 2005년 29개국으로부터 생두를 수입하였으나, 2014년에는 70개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대상국가수가 2.4배(141.4% ↑) 증가하였음

<그림12> 원두 수입대상국가수 변화



○ 최대수입대상국은 미국이며, 2005년 60.2%비중에서 2014년 40.7%비중으로 감소(19.5%p ↓)

<표7> 원두 최대수입대상국 변화 (중량기준)

2005년				2010년				2014년			
순위	국가명	비중	누계	순위	국가명	비중	누계	순위	국가명	비중	누계
1	미국	60.2	60.2	1	미국	51.5	51.5	1	미국	40.7	40.7
2	이탈리아	18.5	78.7	2	이탈리아	18.1	69.6	2	말레이시아	20.1	60.7
3	일본	4.3	83.0	3	일본	12.4	82.0	3	이탈리아	18.7	79.4
4	독일	3.4	86.4	4	스위스	7.9	89.9	4	스위스	4.4	83.8
5	브라질	3.1	89.5	5	브라질	2.6	92.5	5	영국	4.3	88.2
6	스위스	3.0	92.5	6	독일	1.9	94.4	6	일본	4.1	92.3
7	캐나다	1.9	94.4	7	호주	1.4	95.8	7	독일	2.7	95.0
8	호주	1.8	96.2	8	영국	0.9	96.7	8	대만	0.9	95.9
9	프랑스	1.0	97.2	9	캐나다	0.9	97.6	9	브라질	0.6	96.6
10	네덜란드	0.7	97.9	10	콜롬비아	0.6	98.2	10	스페인	0.5	97.1

○ 최근 10년 간, 상위 10개국의 수입비중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최대수입대상국의 수입비중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19.5%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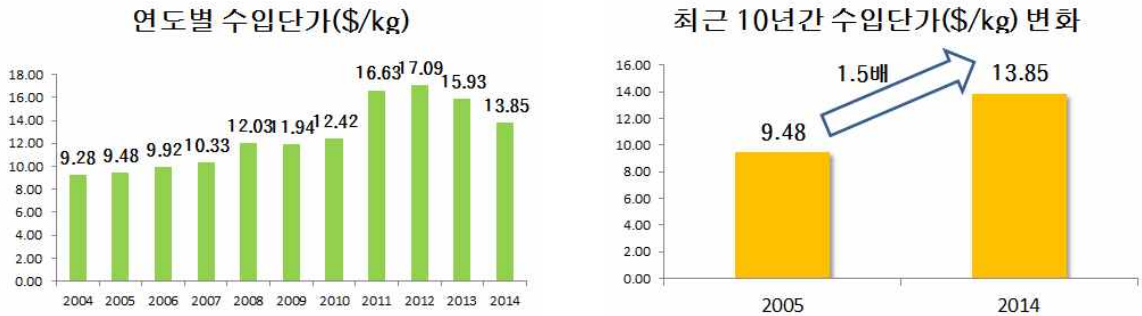
<표8> 원두 수입대상지역 집중도 변화

	2005년	2010년	2014년	최근 10년간 변화
최대수입대상국 비중(%)	60.2	51.5	40.7	-19.5%p
상위 3개국 비중(%)	83.0	82.0	79.4	-3.6%p
상위 5개국 비중 (%)	89.5	92.5	88.2	-1.3%p
상위 10개국 비중 (%)	97.9	98.2	97.1	-0.8%p

□ 원두 평균수입단가는 최근 10년간 1.5배 증가(9.48→13.85)

- 원두 평균수입단가는 2005년 9.48\$/kg 수준에서, 2014년 13.85\$/kg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음

<그림13> 원두 수입단가 변화



- 최대수입대상국인 미국산의 수입가격은 전체평균 수입가격의 71.5% 수준으로, 스위스(224%)·영국(123%)에 비해 저렴한 편

<표9> 원두 수입대상국별 수입단가(\$/Kg) 및 전체 평균수입단가 대비 수준(%)

2005년				2010년				2014년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1	미국	8.82	62.3	1	미국	10.66	56.1	1	미국	12.19	71.5
2	이탈리아	10.91	77.1	2	이탈리아	13.19	69.5	2	말레이시아	9.61	56.3
3	일본	12.84	90.7	3	일본	9.05	47.7	3	이탈리아	15.09	88.5
4	독일	8.19	57.9	4	스위스	28.39	149.6	4	스위스	38.11	223.5
5	브라질	5.86	41.4	5	브라질	7.36	38.8	5	영국	20.95	122.9
6	스위스	11.25	79.4	6	독일	10.96	57.8	6	일본	10.00	58.6
7	캐나다	10.07	71.1	7	호주	12.80	67.4	7	독일	16.13	94.6
8	호주	11.84	83.6	8	영국	15.50	81.6	8	대만	9.75	57.2
9	프랑스	9.43	66.6	9	캐나다	11.77	62.0	9	브라질	8.42	49.4
10	네덜란드	9.23	65.2	10	콜롬비아	11.61	61.2	10	스페인	19.16	112.4

- 상위 10개국의 평균 수입단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저가의 말레이시아산 수입이 2위로 진입해 상위 3개국 내의 평균 가격은 오히려 하락

<표10> 원두 수입대상지역 연도별 평균단가 변화

	2005년	2010년	2014년	최근 10년간 변화
전체 평균수입단가(\$/Kg)	9.48	12.45	13.85	
최대수입대상국 수입단가(\$/Kg)	8.82	10.66	12.19	3.4\$ ↑ (38.2% ↑)
(평균대비 단가수준(%))	(62.3)	(56.1)	(71.5)	(9.2p% ↑)
상위 3개국 평균수입단가(\$/Kg)	10.86	10.97	12.30	1.4\$ ↑ (13.2% ↑)
(평균대비 단가수준(%))	(114.6)	(88.3)	(88.8)	(25.8p% ↓)
상위 5개국 평균수입단가(\$/Kg)	9.33	13.73	19.19	9.9\$ ↑ (105.8%)
(평균대비 단가수준(%))	(98.4)	(110.6)	(138.5)	(6.1p% ↑)
상위 10개국 평균수입단가(\$/Kg)	9.84	13.13	15.94	6.1\$ ↑ (61.9% ↑)
(평균대비 단가수준(%))	(103.9)	(105.7)	(115.1)	(11.2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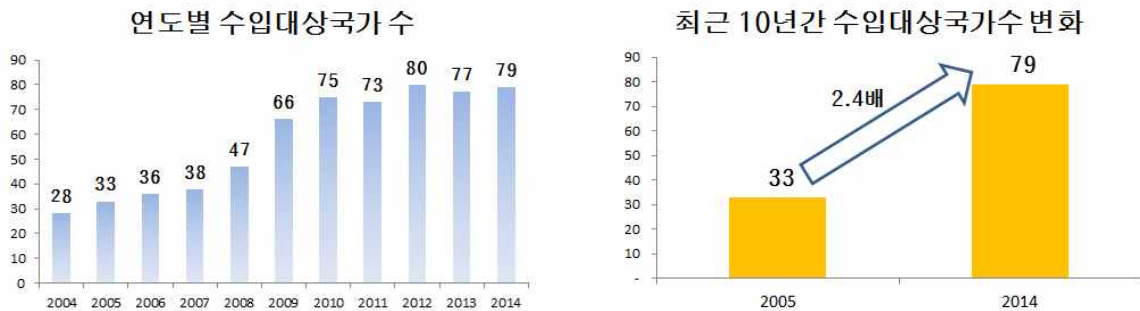
3] 조제품

□ 최대수입대상국은 브라질, 수입대상국가는 10년 간 2.4배 증가

○ 최근 10년간 수입대상국가수는 2.4배 증가하며 수입다변화 확대

- 2005년 33개국으로부터 생두를 수입하였으나, 2014년에는 79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대상국가수가 약 2.4배(139.4%) 증가하였음

〈그림14〉 조제품 수입대상국가수 변화



○ 최대수입대상국은 싱가포르('05년 39.3%)에서 브라질('14년 36.5%)로 전환되었으며, 브라질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

〈표11〉 조제품 최대수입대상국 변화 (수입증량 기준)

2005년				2010년				2014년			
순위	국가명	비중	누계	순위	국가명	비중	누계	순위	국가명	비중	누계
1	싱가포르	39.3	39.3	1	브라질	30.5	30.5	1	브라질	36.5	36.5
2	미국	26.1	65.4	2	말레이시아	12.0	42.4	2	미국	11.2	47.8
3	브라질	16.5	81.8	3	미국	10.0	52.5	3	말레이시아	10.8	58.6
4	이집트	7.5	89.3	4	이집트	9.6	62.1	4	콜롬비아	8.2	66.8
5	일본	1.8	91.1	5	중국	7.2	69.3	5	독일	7.9	74.7
6	에쿠아도르	1.6	92.6	6	콜롬비아	6.4	75.7	6	중국	6.3	81.0
7	프랑스	1.2	93.9	7	베트남	5.3	81.1	7	베트남	4.9	85.9
8	대만	1.0	94.9	8	스페인	4.0	85.1	8	프랑스	2.8	88.7
9	인도	0.8	95.7	9	인도	3.7	88.8	9	스페인	2.5	91.3
10	인도네시아	0.7	96.4	10	일본	3.2	92.0	10	일본	1.8	93.1

○ 최근 10년 간, 상위 10개국의 수입비중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상위 3개국의 수입비중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23.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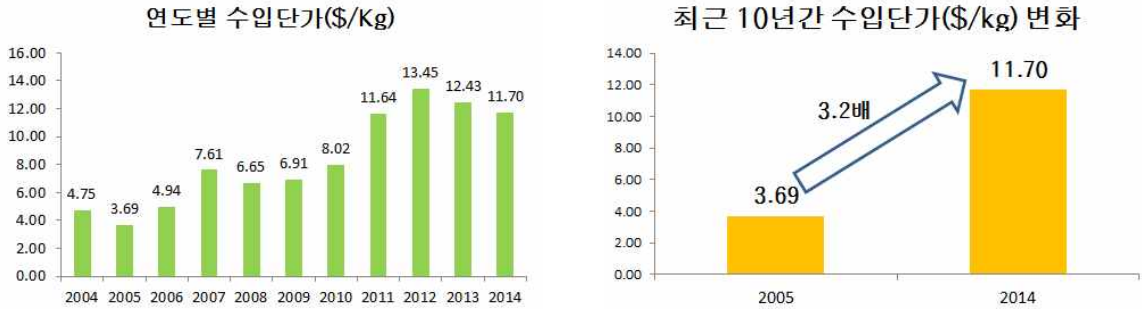
〈표12〉 조제품 수입대상지역 집중도 변화

	2005년	2010년	2014년	최근 10년간 변화
최대수입대상국 비중(%)	39.3	30.5	36.5	-2.8%p
상위 3개국 비중(%)	81.8	52.5	58.6	-23.2%p
상위 5개국 비중 (%)	91.1	69.3	74.7	-16.4%p
상위 10개국 비중 (%)	96.4	92.0	93.1	-3.3%p

□ 조제품 평균수입단가는 최근 10년간 3.2배 증가(3.69→11.70)

- 원두 평균수입단가는 2005년 3.69\$/kg 수준에서, 2014년 11.70\$/kg으로 약 3.2배 증가하였음

〈그림15〉 조제품 수입단가 변화



- 최대수입대상국인 브라질산의 수입가격은 전체평균 수입가격의 58% 수준으로, 미국(120%)·콜롬비아(111.6%)산에 비해 저렴

〈표13〉 조제품 수입대상국별 수입단가(\$/Kg) 및 전체 평균수입단가 대비 수준(%)

2005년				2010년				2014년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순위	국가명	단가	수준
1	싱가포르	1.39	37.7	1	브라질	8.23	102.6	1	브라질	6.78	58.0
2	미국	3.54	95.7	2	말레이시아	5.44	67.9	2	미국	14.11	120.6
3	브라질	6.22	168.5	3	미국	8.98	112.0	3	말레이시아	9.33	79.8
4	이집트	3.60	97.5	4	이집트	5.29	65.9	4	콜롬비아	13.05	111.6
5	일본	18.36	497.0	5	중국	4.36	54.3	5	독일	33.44	285.9
6	에쿠아도르	8.05	218.0	6	콜롬비아	9.80	122.2	6	중국	5.12	43.7
7	프랑스	9.14	247.4	7	베트남	5.97	74.5	7	베트남	8.59	73.5
8	대만	1.44	38.9	8	스페인	10.06	125.5	8	프랑스	14.32	122.4
9	인도	4.00	108.2	9	인도	6.20	77.3	9	스페인	13.57	116.0
10	인도네시아	6.65	180.1	10	일본	19.86	247.8	10	일본	19.18	164.0

- 최근 10년 간, 최대수입대상국의 평균대비 수입단가 수준은 상승하였으나, 상위 10국의 평균대비 수입단가 수준은 하락(51.4%p↓)

〈표14〉 조제품 수입대상지역 연도별 평균단가 변화

	2005년	2010년	2014년	최근 10년간 변화
전체 평균수입단가(\$/Kg)	3.69	8.02	11.70	
최대수입대상국 수입단가(\$/Kg)	1.39	8.23	6.78	3.4\$ ↑ (13.2% ↑)
(평균대비 단가수준(%))	(37.7)	(102.6)	(58.0)	(5.39%p ↑)
상위 3개국 평균수입단가(\$/Kg)	3.72	7.55	10.07	6.36\$ ↑ (171.1% ↑)
(평균대비 단가수준(%))	(100.6)	(94.2)	(86.1)	(14.5%p ↓)
상위 5개국 평균수입단가(\$/Kg)	6.62	6.46	15.34	8.72\$ ↑ (131.7% ↑)
(평균대비 단가수준(%))	(179.3)	(80.6)	(131.2)	(48.1%p ↓)
상위 10개국 평균수입단가(\$/Kg)	96.24	8.42	13.75	7.51\$ ↑ (120.4% ↑)
(평균대비 단가수준(%))	(168.9)	(105.0)	(117.5)	(51.4%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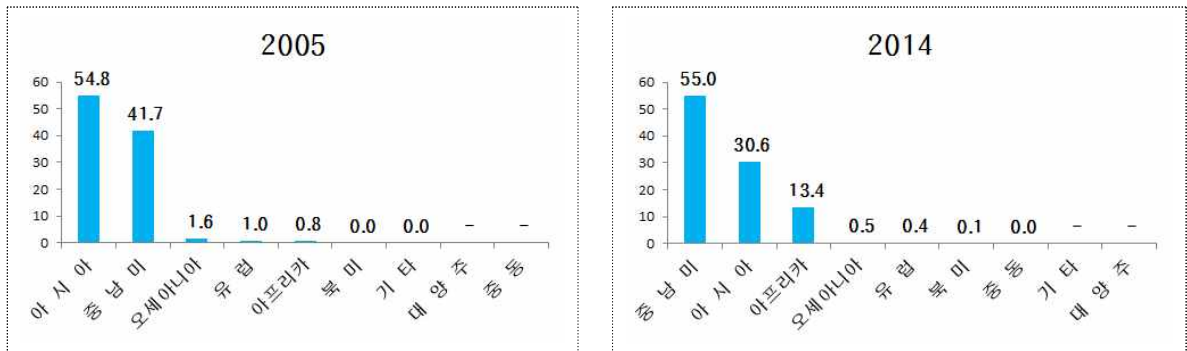
4. 지역(대륙)별 수입동향

[생두]

○ 생두 수입대상 지역은 10년 전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이 전체수입의 약 9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수입의 일부분이 아프리카 제품으로 대체

- 2005년의 대륙별 수입 비중은 아시아(54.8%)>중남미(41.7%)>아프리카(0.8%) 순서였으나,
- 2014년에는 중남미(55.0%)>아시아(30.6%)>아프리카(13.4%)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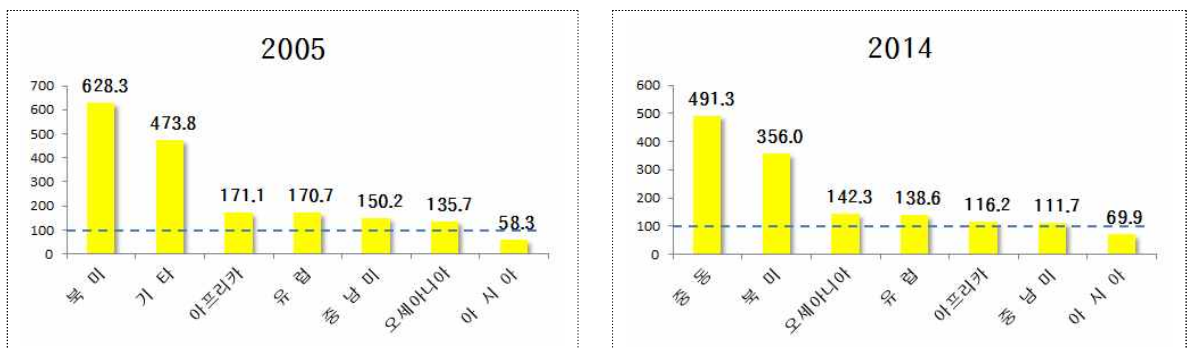
<그림16> 생두 수입 비중(중량기준, %)



○ 아시아 지역의 생두 가격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중남미와 아프리카산도 타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

- 최근 10년간 아시아산 생두 수입가격 수준은 전체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2014년 기준 중남미산(111.7%)과 아프리카산(116.2%)도 그 뒤를 이어 저렴한 제품군에 속함

<그림17> 생두 수입단가 수준 (전체평균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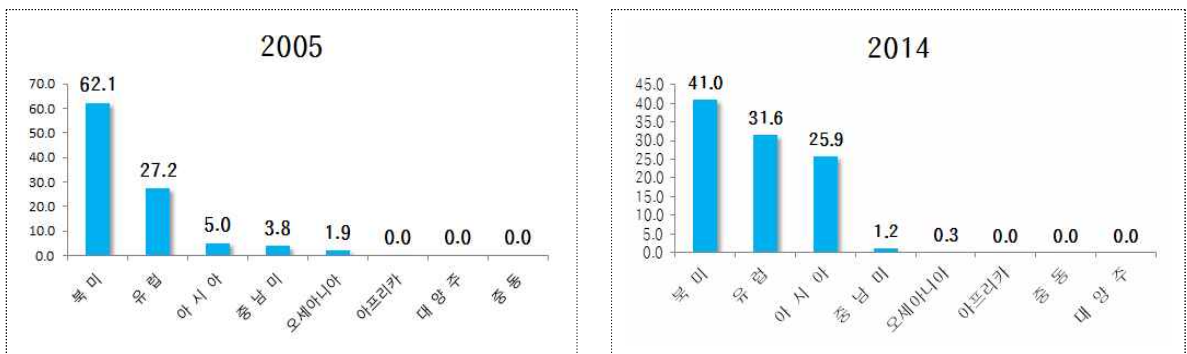


[원두]

○ 원두는 북미산 제품비중이 62.1%로 과반수가 넘었으나, 최근에는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부분적 대체현상이 진행되었음

- 2005년의 대륙별 수입 비중은 북미(62.1%)>유럽(27.2%)>아시아(5.0%) 순서였으나,
- 2014년에는 북미(41%)>유럽(31.6%)>아시아(25.9%)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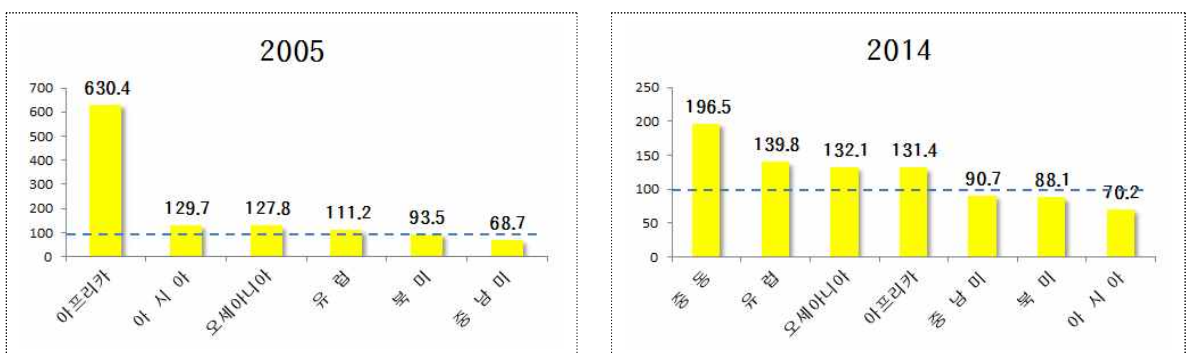
<그림18> 원두 수입 비중(중량기준, %)



○ 10년 전에는 중남미산이 최저가였으나 현재는 아시아산 제품이 가장 저렴, 최대수입대상지역인 북미산 제품가격이 평균수준을 하회

- 2005년 중남미산 제품가격은 68.7%로 가장 낮았으나, 2014년에는 아시아산 제품이 70.2%로 가장 낮음
- 북미산 제품가격 수준은 2005년에 평균대비 93.5% 수준이었으며, 2014년 88.1%로 평균대비 가격수준이 소폭 하락함. 유럽산(2014년 기준 139.8%)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게 나타남

<그림19> 원두 수입단가 수준 (전체평균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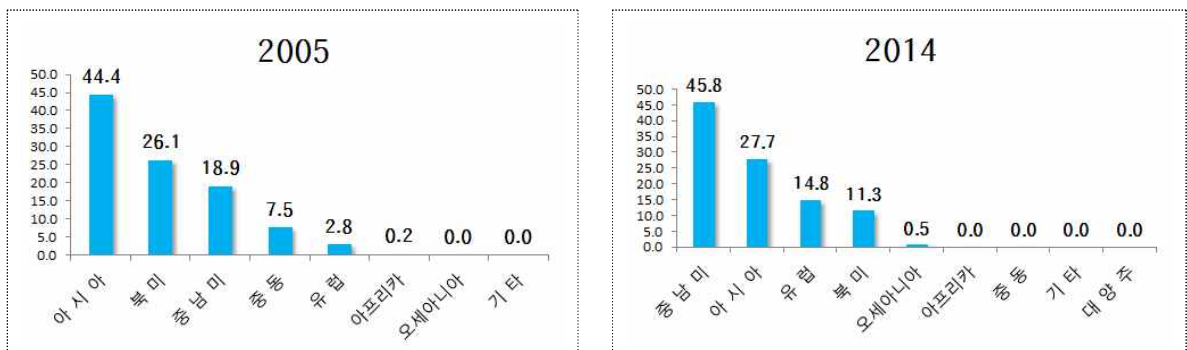


[조제품]

○ 조제품은 10년 전 아시아와 북미산 제품이 전체수입량의 70%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남미산(46%)과 유럽산(15%)이 강세를 나타냄

- 2005년의 대륙별 수입 비중은 아시아(44.4%)>북미(26.1%)>중남미(18.9%)>유럽(2.8%) 등의 순서였으나,
- 2014년에는 중남미(45.8%) > 아시아(27.7%) > 유럽(14.8%) > 북미(11.3%) 순으로 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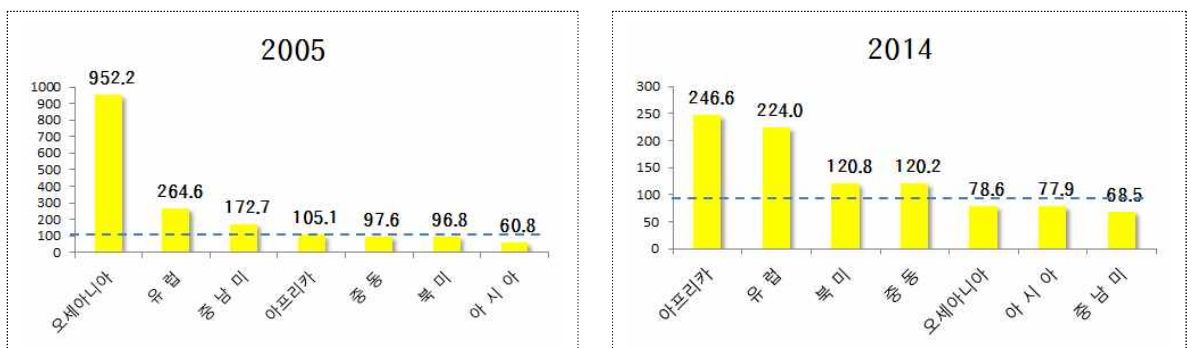
<그림20> 조제품 수입 비중(중량기준, %)



○ 10년 전 아시아산 조제품의 수입가격이 최저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중남미 지역이 최저수준이며 아시아 제품이 그 뒤를 이음

- 2005년 아시아산 제품 수입단가는 전체평균의 60.8%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가장 높았으나, 중남미 및 유럽산 제품의 가격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2014년에는 중남미산 제품 가격수준이 평균의 68.5%로 가장 낮고, 뒤이어 아시아 (77.9%)이며, 유럽산은 224%로 비교적 높은 편임

<그림21> 조제품 수입단가 수준 (전체평균 =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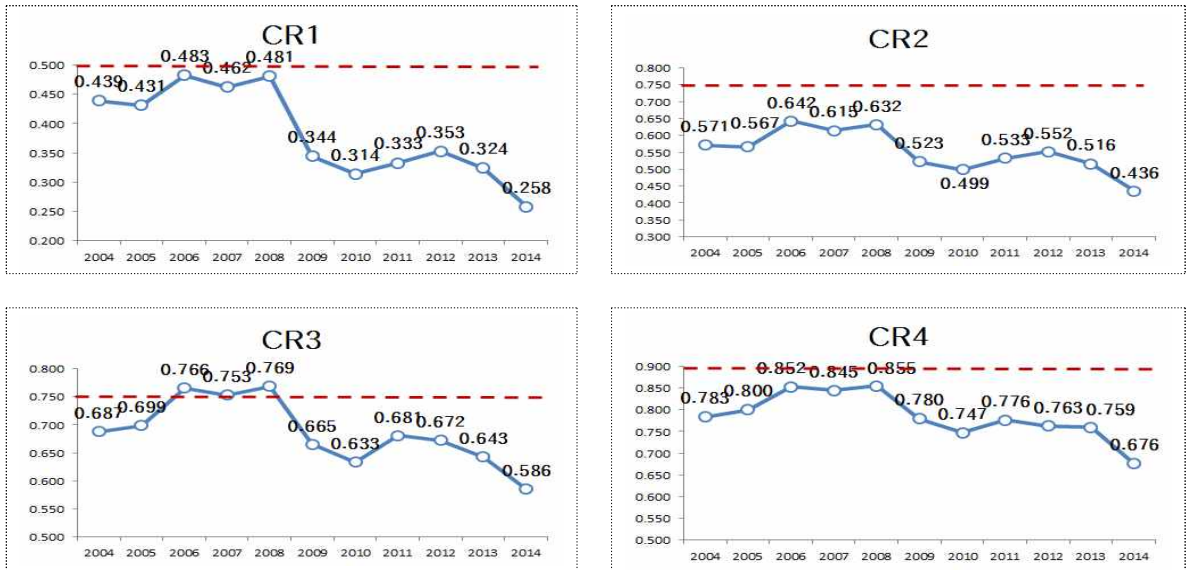
5. 수입구조 분석

[생두]

□ CR : 최근 10년간 한시적인 과점구조가 발생하였으나, 독과점적 구조는 아니며, 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

- CR1은 최근 10년간 독점(monopoly)적 구조를 지니지는 않았으며, CR2도 동기간 동안 복점(duopoly)적 구조를 지니지 않음
- CR3는 2006년과 2008년도에 잠시 과점(oligopoly)구조를 지녔으나 한시적이었으며, CR4는 2010년까지 독점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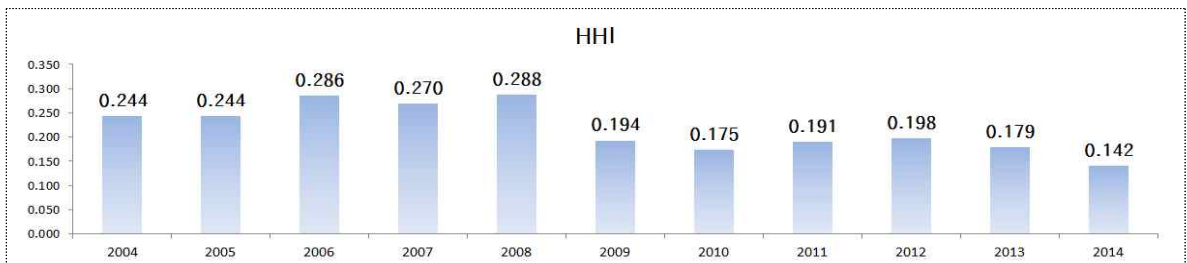
〈그림22〉 생두의 연도별 집중도지수 (CR1~4) 변화 비교(수입물량 기준)



□ HHI :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집중도가 약화되어가는 추세

- '05년 0.244p 수준에서 '08년 0.288p 수준까지 집중도가 강화되었으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4년에는 0.142p로 약화됨

〈그림23〉 생두의 연도별 HHI(허쉬만-허핀달) 지수 (수입물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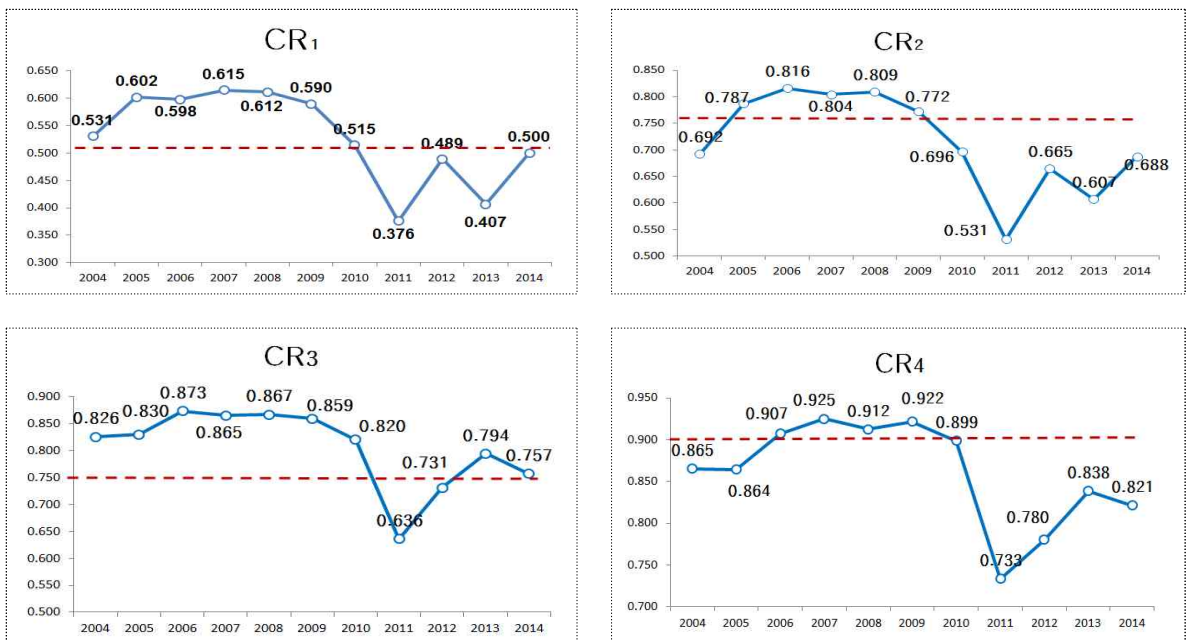


[원두]

□ CR : 2010년 이후부터 독과점 구조에서 벗어난 과도기 성향

- CR1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독점(monopoly)적 구조를 지녔으나 이후부터는 완화되었으며, CR2도 2009년까지는 복점(duopoly)적 구조를 띠었으나 이후부터 완전히 해소됨
- CR3는 2011~2012년을 제외하고 줄곧 과점(oligopoly)구조이며, CR4는 2010년까지 독점적 구조였으나 이후부터 해소됨

〈그림24〉 원두의 연도별 집중도지수 (CR1~4) 변화 비교(수입물량 기준)



□ HHI : 최근 10년간 집중도 하락폭이 타 품목군에 비해 크게 나타남

- 지수값이 2005년 0.403p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2014년 0.247p로 집중도가 하락(0.156p ↓)하며 수입다변화 발생

〈그림25〉 원두의 연도별 HHI(허쉬만-허핀달) 지수 (수입물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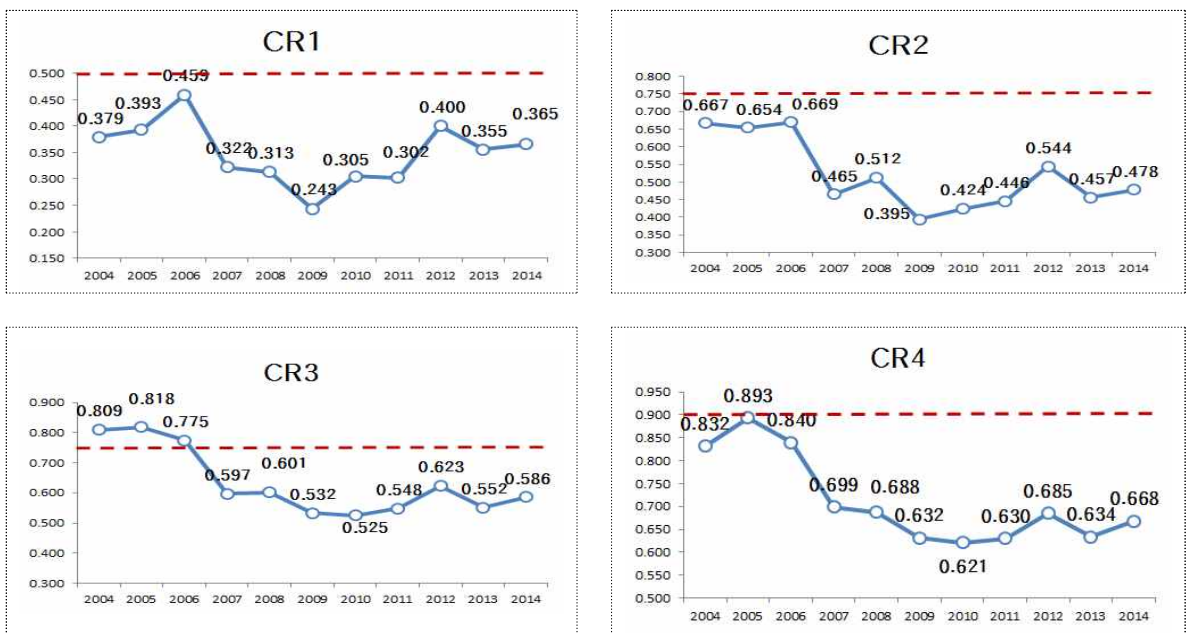


[조제품]

□ CR : 과점 혹은 독점적 수입구조를 지니고 있지는 않으며, 경쟁적 시장구조화 과도기적 성향

- CR1은 최근 10년간 독점(monopoly)적 구조를 지니지 않았으며, CR2 역시 복점적(duopoly) 구조를 지니지 않음
- CR3는 '04년~'06년까지 과점(oligopoly)적 구조를 띠었으나, 현재는 5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CR4도 '06년 이후부터 독점적 구조에서 벗어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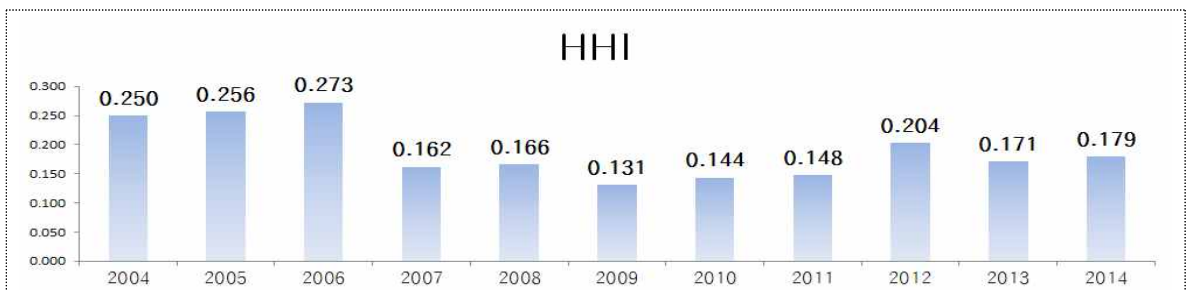
<그림26> 조제품의 연도별 집중도지수 (CR1~4) 변화 비교(수입물량 기준)



□ HHI : 최근 10년 간 경쟁적 시장구조로 변화해 옴

- 지수값이 '06년까지 0.25p를 초과하였으나, '07년부터는 0.1~0.2p 사이 수준을 유지해오면서 비교적 경쟁력 구조를 이룸
- 2005년 0.256p에서 2014년 0.179p 수준으로 향상(0.077p ↑) 되어, 수입다변화 및 시장의 경쟁구조가 강화되었음

<그림27> 조제품의 연도별 HHI(허쉬만-허핀달) 지수 (수입물량 기준)



6. 주요 시사점

□ **커피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며, 커피전문점의 확대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

- 최근 10년간 국내 소비자들의 커피선호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어 커피수입시장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커피전문점 점포의 급격한 증가가 이러한 커피 수입시장 확대추세를 반영
- 전국적으로 커피전문점의 수요 지역은 서울 및 경기지역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역별 인구밀도 분포와 비례하는 특징을 보임

□ **가격 경쟁력에 의해서 수입선 변경 및 부분적 대체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이 있으나, 커피는 지역 특산물의 성격이 강해서 선호지역 제품에 대한 충성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음**

- 최근 10년간 품목군별 수입대상국가수가 급증하는 등 수입다변화가 진행 되었으나, 가격 및 품질경쟁력·제품 선호도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특정국가 제품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임

□ **3개 품목군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원두커피 > 조제품 > 생두의 順**

- 수확된 이후에 단순과정을 거친 후 수입되는 생두, 2차 로스팅 가공과정을 거친 원두커피, 건조 후 분말형태 등으로 재가공 되는 조제품, 이상 3개 품목군에 대한 단위무게 당 과세이전의 상대적 수입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원두커피의 상대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남

1 CR [Concentration Ratio, 기업집중률]

기업집중률의 산식은 $CR_k = \sum_{i=1}^k S_i$ 이며, 이것을 수입대상국의 수입비중을 근거로 해당품목의 수입구조를 파악하는데에 활용하였다. CR_1 은 1위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이 수치가 50%가 넘어가면 독점(monopoly)으로 간주한다. CR_2 는 1위와 2위의 시장점유율합계가 75%를 넘어가면 복점(duopoly)으로 평가한다. CR_3 는 1위부터 3위까지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과점(oligopoly)으로 해석한다. CR_4 는 상위 4개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이면 독점적(monopoly) 시장으로 보며, 40% 이하이면 경쟁적 시장으로 본다.

2 HHI [허쉬만-허핀달 지수]

허쉬만-허핀달 지수의 산식은 $HHI = \sum_{i=1}^N S_i^2$ 으로서, 기업집중률에 비해서 산업별(본문에서는 수입대상국가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 혹은 집중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0과 1사이의 값을 지니며, 0의 값에 가까이 갈수록 분산된 경쟁적 구조를 나타내며, 1에 가까이 갈수록 독점적인 구조를 나타낸다.